

K – Artistes sous le ciel de Paris 2022 김덕용, 김지희 전

[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갤러리 엠나인은 임인년 새해 첫 전시로 김덕용, 김지희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갤러리 엠나인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갤러리 엠나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할 전시 기획 프로젝트인 K – Artistes sous le ciel de Paris 2022 참여 작가의 작품을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개한다.

갤러리 엠나인은 세대를 넘나들며 미술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신선한 조합과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미감을 관람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덕용, 심현, 2021, Mixed media(mother of pearl) on wood, 220x184cm

김덕용 작가의 이번 신작들은 세월이 그려낸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극대화시켰다.

작가의 작업은 100년된 한옥의 나무와 나무 조각에 새겨진 결을 긁어내고 정돈하여 시간의 흔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석채 안료를 나무에 베어 들게 하여 자개를 붙이는 작업은 작가의 예술적 고행으로 탄생한다.

김덕용, 우주를 품다2, 2021, Mixed media(mother of pearl) on wood, 100x100cm

최근 김덕용 작가의 작업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보여주는 모성애는 우주를 팔로 안고 있는 달 항아리의 둥근 곡선을 떠오르게 한다.

김덕용, 심현, 2021, Mixed media(mother of pearl) on wood, 100x120cm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창덕궁은 '심현(深玄)'을 느끼며 어머니를 향한 먹먹함이 하늘의 별들을 자개로 표현되어 깊은 감동을 준다.

김덕용 작가의 신작들은 작가 스스로 추구하는 한국의 미와 전통성의 연장선이자 어머니의 존재를 투영한 작가의 또 다른 내면이라고 갤러리 엠나인 관계자는 밝혀왔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김지희 작가는 숨길 수 없는 욕망,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큰 울림을 주는 작가이다.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안경을 쓴 여인의 모습. 오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김지희 작가의 작품을 대표하는 도상이다.

장지에 전통적인 소재가 아닌 가장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김지희 작가의 작업은 화려한 삶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가장 세속적이지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글라스를 쓴 여인을 통해 이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전

면에 드러낸다. 반면에 화려한 장식들을 통해서 대중들은 스스로 '희망'으로 인식하고 팬데믹 시대에 큰 위안을 받고 있다.

갤러리 엠나인은 동양화를 전공한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우를 제시하고, 큰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출처: 아트코리아방송(<http://www.artkoreatv.com>)